

케이팝뿐만이 아닌 한국의 대중음악 세계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팝. 여러분은 케이팝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다양한 멤버들이 보여주는 약동감 넘치는 비트와 날카로운 댄스, 한번 들으면 귀에서 계속 맴도는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 멋있고 귀여운 모습.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역시 아이돌 가수 중심의 케이팝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일본의 한국음악 코너에는 거의 케이팝 일색이지만, 과연 한국 현지에서는 어떤 음악이 잘 팔리고 있을까. 한국 음악 차트를 보면 역시 케이팝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가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라드, 알앤비, 힙합, 포크는 물론, 최근 화제인 시티팝에 가까운 AOR(어른들을 위한 도회적이고 차분한 록)도 있지요. 한국에서도 일본의 마츠토야 유미나 야마시타 타츠로 같은 거장 싱어송라이터는 물론, 원오크록 같은 록밴드 외에도 재즈, 전자음악 등을 구사하는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80~90년대 풍의 세련된 AOR 적인 가요 LP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빛과소금, 김현철, 유정연, 백예린, 이소라 등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입니다. 또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윤상 씨도 80년대 후반부터 라틴음악에 전자음악을 융합한 전위적이고 팝적인 음악을 발표해 왔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 전통음악과 록을 섞은 연주그룹 잠비나이도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수들은 어디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인기가요’ 등의 TV 음악프로는 이른바 케이팝가수를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KBS 나 MBC 의 평일 심야 혹은 일요일 저녁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프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Space 나, Naver 의 On Stage 의 경우, 실력과 인디 밴드들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방송들은 유튜브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케이팝뿐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매력적인 노래를 꼭 들어봐 주세요.

김근삼 (시각관대학교)

참고문헌

한국일보 ‘26년 만에 돌아온 ‘빛과 소금’ ”시티팝 재발굴에 소환돼 나왔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321560000116>

한국경제신문 ‘윤상이 이끄는 예술단 평양 간다… 대중음악 위주로 구성’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189865Y>

교육방송 EBS Space <https://www.ebs.co.kr/space/main>

우리가요 Archieve-동아기획

<https://www.urigayo.kr/k/%EB%8F%99%EC%95%84%EA%B8%B0%ED%9A%8D>

네이버 온스테이지 <https://vibe.naver.com/onstage/season/2>

古家 正亨 (2012) 『Disc Collection K-POP』 シンコーミュージック・エンターテイメント